"퀴즈로 배우는 내고장 역사, 재밌어요"

담양 창평현 문화硏 주최 '도전! 골든벨' 인기

지역 초등생들에 '자긍심 고취·고향사랑 전파'

"창평에 온 양녕대군을 수행한 궁녀들이 처음 만들었다는 유래가 있는 것은?"

26일 오후 담양 창평초등학교 강당에 모인 100여명의 학생들은 1번 문제가 나오자 일제히 '쌀엿'이란 답을 내놓았다. '호남 최초의 신학당으로 창평초교의 전신인 영학숙(英學塾)을 설립한 사람'을 묻는 10번 문제때도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춘강 고정주'란 답을 맞췄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창평현 문화역사바로알기 도전 골든벨' 현장은 참가 학생들과 교사 및 학부모 등 방청객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민간단체인 창평현문화연구회(회장 박동근)가 마련한 도전 골든벨이 해를 더하면서 지역 역사와 문화 알리기의 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첫해에는 창평초등학교 학생들만 참가했으나 지난해부터 대덕면 만덕초등학교 학생들까지 같이하면서 참가인원도 200여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옛 창평현에 속했던 고서면과 남면지역 초등학생들도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학사일정이 맞지 않아 창평과 대덕지역 초등학생들로 행사를 치렀다. 대신 내실을 기하기 위해 참가대상 학년을 기존 4~6학년에서 5~6학년으로 제한했다.

도전 골든벨로 학생들의 지역 역사에 대한 지식도 풍부해지고 있다. 본 문제 30개와 2~3개의 패자부활전 문제로 진행되는데 1회때는 2명이 마지막 문제까지 맞췄고 2회때는 1명이 골든벨을 울렸다.

주최측은 성인들도 맞추기 힘든 고난이도의 25번 문제까지 살아남는 학생들이 참가자의 10%에 달해 올해는 문제의 난이도를 높였다. 그렇다고 문제의 난이도만 높이지 않고 문화역사 바로알기를 통해 고향사랑을 전파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려 행사 2주전 20페이지에 달하는 예상문제집을 배포하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26일 담양 창평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제3회 창평현 문화역사 바로알기 도전 골든벨'에 참가한 학생들이 피켓에 답을 적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또 회원들의 회비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200여만원 행사비용을 마련해 골든벨을 울린 학생에게는 40만원 상당의 전자수첩을, 참가자 전원에게는 5천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지급했다.

창평현문화연구회 최익준 총무(38)는 "2005년 창평현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연구회를 결성한 후 다양한 활동을 해오다 이듬해부터 자녀들에게도 고장의 역사를 알려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골든벨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창평초등학교 나재환 교장은 "골든벨이란 재미있는 방식을 통해 고장에 대한 지식도 넓히고 수업태도 개선이라는 부수 효과까지 얻고 있다"고 전했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함평 나비엑스포, 민박수입 2억원

지정업소 등 61곳 조사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45일 동안 열린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간 동안 민박을 통한 소득이 2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군은 26일 "엑스포 기간에 운영한 민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정 민박과 미지정 민박, 개인주택 등 61곳의 수입을 조사한 결과 2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군 지정 민박 시설인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 해안민박', 해보면 '예가펜션'과 '황토와 들꽃세상', 대동면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 등 26개 시설이 1억6천141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또 나산면 초포리 '국사재의 집'과 '황금박쥐 황토방' 등 5곳의 미지정 시설과 대동면의 '녹색체험학교', 개인주택 28곳 등 모두 35곳에서 3천757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해남군 '주민과의 소통' 나섰다

김충식 군수 3월부터 릴레이 간담회

김충식 해남군수가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군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김 군수는 지난 3월부터 지역 현안사업은 물론 군정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주민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 군수는 여성 이장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역대 해남군수, 이장단, 여성단체, 고구마, 감자 생산자 단체 등과 만나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한편 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경제 및 관광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고 열띤 토의도 이뤄져 뜻깊은 자리가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군수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많이 들어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한 폭의 병풍처럼…영광 백수해안도로 벽화 여름철이면 더욱 아름다운 영광군 백수해안도로가 벽화로 치장됐다. 영광군은 백수읍 '365 계단' 주변의 해안도로 250여m에 20폭의 벽화를 그려 넣었다. 국도 77호선과 연결된 백수해안도로는 기암괴석과 각종 풀꽃들이 어우러져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 9위에 오른 바 있다. 〈영광군 제공〉

보리 재배농 고충 덜고, 사료값 시름 축산농 돕고

영광군 사료용 보리 '전량 수매'

郡, TF팀 구성 지원책 마련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이 사료용 보리 전량 수매를 추진한다.

정기호 영광군수는 지난 24일 "농협 및 축협 등과 협의해 군내에서 재배되는 보리를 전량 수매하는 정책을 조기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 군수가 보궐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 사항으로, 수매가 하락과 수매량 감소에 따른 보리 재배 농가의 고충을 덜고 사료값 폭등에 시달리는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한 조치라는 것.

정 군수는 이를 위해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할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실제로 23일 시작된 영광의 2008년산 보리 수매량은 산물수매(미 건조 보리)와 포대수매(건조 보리)를 합해 지난해보다 2만3천여가마가 줄어든 20만여가마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영광군 농업기술센터는 사료용 보리 재배를 권장하고 이를 전량 수매하기 위해 관내 보리 채종포 단지(종자 재배 단지) 를 늘려 사료용으로 쓰이는 영양보리 460t을 비롯해 새쌀보리 220t, 새찰쌀보리 170t 등을 수매할 방침이다.

2006년 하반기부터 수매가 시작된 영광의 보리 채종포 단지는 전남지역의 유일한 보리 종자 재배단지로, 채종포 보리의 경우 수매가에 정부 장려금 15%가 추가로 지급된다.

정 군수는 "보리 채종포 단지를 확대하고 청보리 등 사료용 보리 재배 및 수매를 늘려 보리 재배 농가와 한우 축산 농가를 함께 돕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맨손으로 물고기 잡고 추억도 남기고

장흥 청정갯벌서 내달 5일 개매기 체험행사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개매기 체험행사(사진)가 오는 7월5일 오후 2시부터 5시간 동안 장흥군 대덕읍 신리 앞바다 천연 갯벌에서 열린다.

'개매기'는 조석 간만의 차가 큰 바닷가의 갯벌위에 그물을 쳐 놓은 뒤 밀물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떼를 썰물때 갇히도록 해 고기를 잡는 전래 고기잡이 방식이다.

풍물패의 흥겨운 농악과 함께 진행될 이번 행사는 관광객들에게 숭어, 농어, 돔 등을 맨손으로 직접 잡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머드 봉선화 물들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있다.

또 개매기 행사 체험 후에 자신이 직접 잡은 바닷고기를 즉석에서 회로 맛볼 수도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안겨줄 전망이다.

신리 앞바다에서는 이번 1차 개매기 체험행사에 이어 8월2일 오후 1시부터 5시, 8월30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2, 3차 개매기 체험행사가 예정돼 있다.

입장료는 어른 5천원이며 10세 이하와 70세 이상 노인은 3천원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광양제철소, 3년간 녹화사업에 165억 투자

포스코 광양제철이 올해부터 3년간 165억원을 투자해 제철소 부지 내에 나무를 심는다.

광양제철소는 녹화투자계획에 따라 올해 56억원, 2009년 78억원, 2010년 31억원 등 165억원을 들여 제철소 부지 내에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광양제철측은 태풍피해가 적고 조경 효과가 좋은 활엽수 위주로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특히 활엽수의 경우 침엽수 보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양제철소의 3년간 나무심기 투자계획이 마무리되면 제철소 녹지비율이 현재 20.3%에서 21.9%로 늘어난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